

# 전국 최초 봉사자 전문도서관 전주에 개관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개관식 가져... 봉사 관련·어린이·일반 도서 등 총 6736권 비치

전주에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며 인문학적 소양도 키울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봉사자 전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지난 10일 센터 1층에 마련된 봉사자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황의욱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회적협동조합 느루걸음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양상블 공연으로 문을 연 개관식은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도서관 조성 경과보고 △김승수 전주시장의 '도서관 이야기'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관한 봉사자도서관은 봉사 관련 도서 461권과 어린이도서 3229권, 일반도서 3046권 등 총 6736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으며, 특히 1222권의 만화책도 비치돼 미래의 봉사자인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봉사자도서관은 공간과 시설, 주변 환경 등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형 도서관으로 꾸며졌다.

또한 봉사자도서관은 비치된 자원봉사 관련 도서를 전국의 자원봉사 기관·단체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수령해서 꾸며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일 센터 1층에 마련된 봉사자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황의욱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점에서 의미가 크다. 봉사자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관일이다. 황의욱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봉사자도서관은 봉사자들의 꿈과 정신을 잇는 공간으로, 봉사자의 참 의미를 느끼며 책도 읽은 소중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도서관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인 책을 만나는 기회의 장소이자 이웃과 만나는 공동체의 거점"이라며 "봉사자도서관이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봉사

자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사람받는 문화사랑방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사자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윤상기자

# 'K-푸드 세계 거점도시 전주 국제포럼' 개최

### 시, 16일 전북대 컨벤션센터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지정 10주년 기념... K-푸드 나아갈 방향 고민

대한민국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에서 '맛의 도시' 전주를 재조명하고 한식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국제포럼이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6일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지정 1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음식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K-푸드 세계 거점도시 전주 국제포럼'을 개최

한다. 'K-푸드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 국제 포럼에서는 K-푸드 세계 거점도시 전주 선포식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10주년 기념영상 및 축하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필립 칼더(Philip Calder)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 교수와 차연수 전북대학교 교수는 각각 '지중해 식사의 세계

화 전략 노후'와 'K-푸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통해 K-푸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와 함께 △K-푸드의 문화적 가치 △K-푸드와 관광산업의 융·복합산업 △K-푸드와 미래 등 이번 포럼에서 준비된 3개의 세션에 김명선 한국식품연구원 박사과 최현욱 전주대학교 교

수, 김미나 전북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저명 교수와 연구원, 기업체 관계자 등 15명이 패널로 참여해 K-푸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지정 10주년을 기념해 주최하는 이 국제 포럼은 전북대학교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주관하고, 전주대학교와 (주)하림이 후원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K-푸드 거점도시 전주 국제포럼을 통해 'K-푸드'의 가치를 알리고 K-푸드 음식문화의 지속가능성을 펼쳐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10일간 10만 보 챌린지' 운영

### 전주시보건소, 13-22일 비대면 건강걷기 프로그램

### '워크온' 앱 활용 10만 보 달성 시민 200명에 경품 증정

10일간 10만 보를 걸으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으로 시민들의 저하된 신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비대면 건강걷기 프로그램인 '10일간 10만 보 챌린지'를 운영한다.

희망자는 개인 휴대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 전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챌린지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걷기에 참여하면 된다.

보건소는 10일간 10만 보의 걷기 목표를 달성한 시민 중 200명에게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걷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비대면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걸



기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을 돕는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특이민원 발생상황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

### 전주시, 민원인 위협행위로부터 민원 담당자 보호 위한 훈련 실시

전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민원실에서 완상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위협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이민원 발생상황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 등에 대비하여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사전에 편성된 비상대응반의 역할 숙지 여부 점검 △긴급상황 발생 시 민원실에 설치된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비상벨 작동 시 경찰 출동상황 등을 유사시 직원과 민원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모의훈련을 실시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시청 민원실뿐만 아니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반기별로 1회 이상 모의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야호학교와 함께 만드는 행복올타리' 프로젝트

### 전주시 야호학교, 청소년·지역주민·어르신과 벽화 그리기 진행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지난 11일 여의동 우신아파트에서 청소년들과 지역주민, 노인복지시설 노인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며 마을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야호학교와 함께 만드는 행복올타리'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야호학교 청소년들이 지역 내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 벽화를 그리며, 지역주민과 노인복지시설 노인 등과의 대화를 통해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시 야호전환교육과 관계자는 "이번 벽화그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야호학교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지역주민, 어르신들과 함께 지역 환경조성에 사용하는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을 위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끌어내고, 야호학교를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호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불법 전단지 관·경 합동 야간 집중단속 실시

### 전주시 완산구, 과태료 부과·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등 시행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9일 관·경 합동 불법 전단지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완산구는 불법 전단지 주로 살포되는 야간 시간대에 서부신시가지, 전주객사 주변을 시작으로 불시 순찰을 강화해 살포행위 증거를 직접 수집했다. 적발된 불법전단지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완산구는 지난 5월 28일 1차 관·경 합동 단속에서 민원신고로 적발된 불법 전단지 배포 11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완산구는 구민이 직접 지역 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을 지급해주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도 13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3~10분 마다 전화를 걸어 경고메시지를 전달, 실시간으로 통화연결을 방해해 해당

불법 광고주의 영업행위를 억제 시키는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시스템도 상시 운영한다.

완산구는 지속적으로 불법 유해전단지에 대한 관·경 합동 단속 및 수거를 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등 불법 유해전단지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앙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그동안 무차별로 살포된 불법 유해전단지로 거리가 지저분했는데 구에서 노력해주시는 덕분에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전했다.

김병수 구청장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불법 유해전단지 근절을 위해 야간 단속 시행, 수거보상제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전단지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완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재능 나눔 전문 자원봉사자 48명 양성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상반기 자원봉사 특화교육 수료식 가져

다양한 봉사현장에서 재능나눔으로 활동할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탄생했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 센터 이웃사랑관에서 '2022년 상반기 자원봉사 특화교육 수료식'을 열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48명의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상장 황의욱)는 지난 9일 센터 이웃사랑관에서 '2022년 상반기 자원봉사 특화교육 수료식'을 열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48명의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지난 4월부터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특화교육은 △이·미용(심화과정) △책놀이지도 △풍선아트 △전래놀이 등 4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이날 활동영상을 함께 감상하고, 그간 배웠던 교육을 활용한 그림자극(책놀이지도)과 이야기 싹뜨기(전래놀이) 공연을 선보였다. 풍선아트 특화교육 강사와 수료생들은 수료식장을 다양한 풍선장식으로 꾸미고 예쁜 풍선꽃다발까지 준비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 1층에 마련된 '봉사자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포함해 수료생들은

향후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지속적인 재능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영역을 다양화하고 재능나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자원봉사 특화교육을 통하여 총 3000여 명의 전문봉사자를 양성했다.

배출된 전문봉사자들은 교육을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행사 등에 지속 재능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정석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지난 2년여간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자원봉사 활동이지만 최근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어린이집 원생 대상 탄소중립 아동극 공연

### 물 아껴 쓰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일상 속 실천 약속

전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강당에서 지역 어린이집 원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아동극 공연을 선보였다.

이 공연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형성을 도우면서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에도 탄소중립 아동극 공연이 무대 위에 올려졌다. 아동극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 동물

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각색됐다.

아동극을 본 어린이들은 △물 아껴 쓰기 △전기 아껴 쓰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천연제품 사용하기 등을 약속하며 향후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극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전주교육지



원청과 연계해 국·공립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도 탄소중립 교육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 관계자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이들의 눈높이

에 맞춰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서 "앞으로도 탄소중립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을 형성하고 실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